

취향과 기독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취향간의 갈등 해결*

Taste and Christianity

김종원 (Jong Won Kim)**

ABSTRACT

This paper is a try to resolve conflict between various tastes, which are under the influence of subjectivism, from Christian point of view. In order to do it, firstly, I will look into the origin of the concept 'taste' and its developments. After that, I will identify good taste with virtue and show that Christian virtues play the same role as tastes by revealing that there are belief-systems behind both tastes and virtues. Finally, I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astes through comparing belief-systems.

Key words: Taste, Christianity, Empiricism, virtue, conflict resolution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22일 최종수정, 12월 31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23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나사렛대학교(Korea Nazarene University) 오웬스 교양대학 조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kjw@kornu.ac.kr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 이후 진리에 관한 객관주의가 쇠퇴하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주된 사상으로 영향을 발휘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들을 통해 자신만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도구적 이성의 객관적인 사용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경우 포괄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리가 위협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그 해의 단어로 ‘탈진리(post-truth)’가 등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post-truth’란 ‘대중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과 관련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오늘날은 거리낌 없이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나열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신념을 관철시키도록 현실을 수정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탈진리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일례로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딥페이크 기술과 초정보와 초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매체 발달은 그 부작용으로 가짜 뉴스와 같은 허위정보를 산출하여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2016년에 미 대선과 코로나 사태와 연관된 여러 주장들은 이러한 도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사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진리의 시대에 사실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 할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적 취향을 바탕으로 거짓된 신념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 신념을 대중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탈진리 시대의 특징이라면 탈진리의 시대는 곧 취향의 시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과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부되던 많은 것들이 문화 상대주의의 영향을 거쳐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수학과 같이 기계적인 진리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과 주장이 ‘취향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는 더욱 파편화되었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곳곳에 편재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이성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견해도 단지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나타내는 취향이라는 이름아래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취향에 대한 강조가 보여주는 이러한 탈진리 시대의 특성은 전통 종교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정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며 종교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어떤 가르

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결국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본 논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늘날 취향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만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주관적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사라진 현대의 갈등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향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취향 개념을 분석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품성과 취향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대적 갈등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취향 개념의 변천사

오늘날 개인적 신념을 정당화하는 만능키로 사용되는 취향(taste)은 어떠한 개념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 이 절에서는 원래 미(味)각을 지칭하던 취향(taste) 개념이 어떻게 그 범위가 확장되어 미(美)적 취향을 지칭하는 말로 변하고 마침내는 미적 취향뿐만 아니라 도덕적 취향을 포함한 다양한 취향까지 아우르게 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취향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8세기 영국 경험론자들이 미적 취향을 미학 연구에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자면 취향에 해당하는 ‘Taste’는 5가지 감각 중에서 미(味)각에 대응하는 감각작용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따르면 미각은 원래 촉각의 일종으로 혀의 촉각을 통해 얻는 감각이었다(Carruthers, 2013: 109). 혀의 표면에서 신경을 거쳐 당시에 최종 수용기관으로 생각되던 심장에 도달하여 달콤함과 같은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味)각작용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Bacon, 1937: 18).

그렇다면 왜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하필이면 미(味)각에 대응하는 감각작용인 취향이 오늘날 우리의 선호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는가? 동양에서는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良藥苦口)는 말이 존재하지만, 서양에서는 고대와 중세에 걸쳐 맛과 신체에 필요한 영양은 조화를 이룬다고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맛은 열기와 냉기 그리고 건조함과 습함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즐거운 맛이란 이 요소들이 한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것을 감각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Carruthers,

2013: 112). 이처럼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내 몸에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먹기도 좋고 내 몸에도 좋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맛있다는 감각작용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었고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즉각적인 감각작용이기에 시각작용과 청각작용처럼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맛을 지칭하던 취향(taste)이 판단과 결합하여 사용되게 되었는가? 18세기 영국 경험론자들이 미(美)를 파악하는 기관으로서 미감을 상정하였고 아름다움의 판단근거를 취향에 두었으니 취향의 시대라고 불렀던 18세기보다는 이전에 취향과 판단이 연결되었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판단은 중세 이전 시기에는 취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맛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주된 생각이었다. 서서히 판단이 취향과 결합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에 히브리적 전통이 서양사상에 유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사상가들은 성경적 비유에 따라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달콤함이라는 맛을 신을 아는 것과 결합시켜 신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Carruthers, 2013: 125).¹ 인간은 신이 주신 감각을 통해 신을 알고 신과 교제해야 하는데 이때 신을 파악하게 하는 여러 영적인 감각들(spiritual senses) 중 대표적인 감각이 바로 미각(taste)이었다. 영적인 취향(taste)이 성경과 신에 대한 묵상을 도구로 삼아 신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방식이었다(Coolman, 2004: 38). 이처럼 히브리 사상에서 ‘달콤함의 취향’이란 신과 신적 지식을 알게 하는 판단과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찰스 버넷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취향이 시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보다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더 적합한 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3세기에 들어서였다(Burnett, 1991: 230). 즉, 13세기에 와서야 다른 감각들과 달리 실수 없이 완전한 방식으로 사물의 본성을 알려주고 판단하는 감각으로 취향이 상정되기 시작한 것이다(Burnett, 1991: 231).

취향이 미(味)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과 표현양식에까지 확장된 것은 중세 말에 들어서였다. 당시 예술과 표현양식에서 좋은 취향(good taste)을 지칭하는 단어가 ‘진솔한(honest; honestus)’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윤리적 혹은 사회적인 가치 이상을 표현하는 단어였다(Carruthers, 2013: 113). ‘진솔한 정원’ 혹은 ‘진솔한 장식’과 같이 예술과 표현양식의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 그것은 당대의 명예로운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을 지칭하던 것이었다(Carruthers, 2013: 113). 당대의 지식층이자 선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의 사물이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가치와 유익함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물은

1) 대표적인 구약성경 본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8).”

‘진솔한 사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판단을 만드는 취향은 좋은 취향이라고 간주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취향’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판단과 무관하게 사용됐지만 그 의미가 확장 되면서 중세 말에 점차적으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본격적인 취향과 예술의 연결은 18세기 미(美)학을 연구하던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해서였다. 그 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적 판단이란 이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실행되던 것이었다. 진선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성을 통해 발견 가능한 조화, 균형 그리고 비율이 미적 판단의 주된 근거라고 본 것이 그 이전 시대 미학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자 이성이 아닌 감각(sense)이 미를 판단하는 주된 능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외부대상의 다양한 속성(소리, 냄새, 색깔, 크기, 모양, 움직임 등등)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외감(external sense)과 외감에서 들어온 여러 속성들을 재료로 삼아 우리 마음 안에 즐거움이나 불쾌감과 같은 선호의 감정과 혐오의 감정을 생기게 하는 내감(internal sense)이 존재하는데 도덕감(moral sense)과 미감(sense of beauty)이 바로 이 내감이라 부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었다(Shaftesbury, 2000: 172; Hutcheson, 2004: 23-25). 외부대상의 모습이나 여러 색깔들의 조화가 외감을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면 내적 감각인 미감에 의해서 그 대상에 대한 즐거움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미감에 대한 이들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초기의 경험론자들은 취향(taste)보다는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감(sense of beauty)이라는 내적 감각기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샤프츠베리(Shaftesbury)는 신에 의해서 미추를 구별하는 선천적·자연적 본능으로 주어진,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내감으로서 자연적 정서(natural affection)를 상정하였고(Shaftesbury, 2000: 325), 허치슨(Francis Hutcheson) 역시 우리 안에 경험을 통해 발견 가능하지만 경험과는 독립된 특별한 내적 감각인 미감(sense of beauty)이 있어 미 관념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utcheson, 2004: 23). 이들이 말하는 내감으로서의 미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판단하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미감이라는 선천적인 감각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당시 경험론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다. 자신이 미적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은 반성작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천적인 감각기관이 있다는 주장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험론자들은 18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미감(Sense of beauty)이라는 내적인 감각기관의 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미적 취향이라는 미에 대한 선호의 감정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미적 취향이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취향이란 ‘선하고 정직하고 존경할만한(good, honest and honorable)’ 사람의 취향을 지칭하는 단

어였기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미는 18세기에도 여전히 선과 연관된 단어였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외적 대상을 보고 정직하게 미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졌으므로 취향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미적 즐거움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경험론자들 중에 한명이었던 제라드(Alexander Gerard)는 취향을 다른 감각작용을 대상으로 삼는 일종의 지각으로 간주하고, 취향이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Grene, 1943: 45). 따라서 그에게 취향은 대상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갖는 즐거움의 원천인 것이다(Gerard, 1759: 192). 제라드는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7가지 원천을 제시함으로써 취향의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즉, 참신함, 장엄함, 아름다움, 모방, 조화, 미덕, 놀림의 관념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우리 안에는 즉각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Dickie, 1996: 30). 하지만 그렇다고 취향이 이성을 통한 인지적 작용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취향은 우리의 인지적 판단과 상상력에 의해서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제라드는 주장한다. 예컨대 참신함에 아름다움이 결합하여 더 큰 기쁨을 형성할 수도 있고, 전혀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두 관념이 합해져서 즐거움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리슨(Archibald Alison) 역시 제라드와 마찬가지로 관념들이 연합하여 취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 상상력과 경험 그리고 교육의 영향 아래서 개인의 감정적 특질과 결합하여 개인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취향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슨은 좋은 취향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Jauss, 2006: 418).

이와 같이 제라드와 알리슨은 취향을 관념의 연합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취향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기준은 제라드와 알리슨을 거치면서 내적 감각기관인 미감에서부터 취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미적인 대상에 대한 판단에서 주관적인 감정의 뭉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즉, 주관적인 상상력과 경험 그리고 교육은 사물의 속성에 관한 단순 일반 관념과 일반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적 관념들을 마음속에서 연결되게 만들어 개인의 주관적 취향을 형성시킨다. 예를 들어 평범한 맛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과 비슷한 맛이려면 내안에 보다 강한 미(味)적 즐거움을 산출해서 선호의 취향이 생긴다든지, 예쁘게 쓰인 글씨임에도 어릴 적 나를 괴롭히던 친구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 안에 불쾌감이 산출돼서 그 글씨에 대한 불호의 취향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관념들 간의 연합 작용으로 취향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점차적으로 취향이 상대화·주관화되는데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훔(David Hume)은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취향의 상대적이고 주

관적인 성격을 분명히 인지한다. 흄은 취향이란 주관적인 감정인 미의 감정에 대해 승인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Hume, 1996: 42), 여전히 진정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취향의 기준이 있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흄까지만 하더라도 “취향(취미)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들이 존재(Hume, 2019: 35)”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흄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취향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주장과 함께 취향은 점차 주관적인 것으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 취향은 개성과 연관됨으로써 현대에 이르러 주관화된 취향은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2. 취향과 미덕 그리고 기독교

그런다면 이러한 취향 개념은 미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18세기 소설가인 안 래드클리프(Radcliffe, 2008: 49-50)는 “미덕(virtue)과 취향(taste)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미덕은 적극적인 취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미덕과 취향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하였다. 앞서 제라드의 주장처럼 취향은 다양한 원천에서 작용하는데 그중에 미덕에 대한 취향도 있으니 미덕과 취향을 연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을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미를 미적 선함으로 간주했으며, 샤프츠베리와 허치슨과 같은 도덕감 이론가들이 미학 이론을 연구하게 된 계기 역시 미감과 도덕감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도덕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감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려는 이유였으니 미덕과 도덕적인 취향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²

18세기 미학에서 미감이론이 취향 이론으로 바뀌어 간 것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윤리학에서 도덕감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 감정(moral sentiments)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감이 그렇듯이 내감으로서의 도덕감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경험론자들에게는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그들은 도덕감보다는 경험 가능한 도덕 감정을 중심으로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을 설명하고자 했다. 흄과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에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마치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으로 환원시키는 ‘연민’과 ‘공감’과 같은 자연적 감정이 존재하는데(양선이, 2016: 323),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타인이 느끼는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도덕적 감정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인류 전체에 대한 공감을 통해 행위자의 덕스러운 성품과 행동에 도덕적 승인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덕적 불승인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종원, 2020: 63-97을 보라.

그렇다면 도덕 감정을 통해서 도덕적 승인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 도덕적 승인의 판단은 결국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도덕적 판단자의 연민과 공감의 감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신과 같은 도덕적 판단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적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도덕적 승인의 판단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도덕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덕 감정은 도덕감과 달리 한 사회내의 규약과 전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화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도덕 감정 역시 취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도덕 감정이 승인하는 덕스러운 성품과 덕스러운 행동의 기준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성품(미덕)을 평가하는 도덕 감정은 미적 취향과 동일한 구조와 성격을 갖고 있다. 취향도 미덕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점차 모여져서 생겨난 것이고 내가 선호하는 취향들이 모여서 내 성품을 구성하듯이 내가 가진 미덕들도 모여서 나의 성품을 구성하니 미덕은 넓은 의미의 취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적 취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독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적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윤리적 입장은 신명론이다. 신명론에 따르면 도덕이란 선하고 정의로운 신에 의존한다. 특정한 도덕적 행위가 옳은 이유는 신이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도덕과 연관된 명령들은 신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윤리적인 잣대로 삼아 행동해야한다는 것이 신명론의 입장이다. 이 신명론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기독교의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윤리이론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반해 신 동기부여 이론(divine motivation theory)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기독교적 관점의 윤리이론 중 하나이다. 자그웁스키에 의해서 주창된 신동기부여 이론은 신명론과 달리 덕 윤리학을 중심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덕 윤리학이 그렇듯이 자그웁스키는 덕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emotion)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데, 감정이란 단순히 정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의식적 마음의 상태이다(Zagzebski, 2004: 59). 즉, 감정이란 지향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자 일종의 정서적인 지각으로, 이때 감정이란 감정을 일으키는 지향적 대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감정인 것이다(Zagzebski, 2004: 61-62). 이러한 감정 중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감정을 동기(motive)라고 부른다. 선한 동기로부터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악한 동기로부터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이자 감정은 감정에 관한 특정한 성향을 형성시켜 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성향이 습관을 통해 굳어지면 성

품이 되는 것이다(Zagzebski, 2004: 118). 덕이란 바로 이러한 성품을 형성하는 특질들 중에서 선한 동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향을 의미한다(Zagzebski, 2004: 122).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덕스러운 사람이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산출하는 사람이다.

신 동기부여 이론은 덕스러운 완전한 존재로 성경에 나타난 신을 상정한다. 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고 신을 닮은 인격적인 인간에게 이러한 감정, 동기, 덕이 존재하니 인격적 존재인 신 역시 완전한 형태의 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 성경에 나타나는 긍휼, 사랑, 자비와 같은 동기들이 이러한 신의 완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덕들일 텐데,⁴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성품들, 그 중에서도 덕과 연관된 성품들을 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신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신 동기부여 이론의 주된 주장은 모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닮아가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 모방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이나⁶ 사랑⁷, 자비⁸, 정의⁹, 진실함¹⁰과 같은 신의 성품들을 모방을 통해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이 행위보다는 성품에 초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인간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¹¹

도덕적 취향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선호와 같은 종류에 속한다면 도덕적 취향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란 자신의 도덕적 취향을 신의 성품에 맞출 때 생겨날 수 있다. 신 동기부여 이론은 사람마다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 취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의 도덕적 행위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명론과는 다르다.¹² 그렇다고 신 동기부여 이론이 도덕적 취향에 대해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 3) 자그웁스키는 성경의 신인동형적 표현을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인격'이라고 하는 신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표현한다고 믿는다(Zagzebski, 2004: 202).
- 4) 자그웁스키에 따르면 신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함이 있는 감정들, 예를 들어 두려움, 희망, 질투, 괴로움과 같은 감정들-은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이다(Zagzebski, 2004: 207).
-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 6) "...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라(레 19:2)."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룩의 뜻을 세속적인 것과 의 분리와 견고함으로 나누고 덕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신학대전 2부 2권 81문 8절 참조
- 7)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일 4: 7)"
- 8)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의 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느도다(시 145: 8-9)."
- 9)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도다(시 11:7)."
- 10)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답후 2: 13)"
- 11)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팔복(마 5:3-12)과 세 율법에 관한 표현들(마 5:21-32)은 예수가 행동이 아닌 성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잘 보여 준다.
- 12) 신동기부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Johnson, 2012; 504-517.

적 취향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는 신의 성품에 부합하는 도덕적 취향이 있으며 그 취향이 야말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취향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 동기 부여 이론은 도덕적 취향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3. 취향과 갈등 해결

취향이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의 이상적인 취향(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취향이 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의 객관적인 좋은 취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갈등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에 되지 못한다. 주지하다시피 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상대적인 개념이기예(Macintyre, 1984: 126), 취향 역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심지어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취향이라는 것이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의 이상적 취향의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 존중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적어도 진리에 관한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휩쓸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상적인 취향이 있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렇다면 취향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필자는 두 가지 예를 통해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의 전략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예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테네 설교이다. 바울은 유일신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과 다신교를 받아들였던 그리스인들에게 다른 전도방식을 채택했다. 다신교를 받아들인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고라에 나가 날마다 토론하였는데, 그 토론 방법이란 그들이 상정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즉,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다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기독교의 신으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했다. 아마 당시 일부의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일차적으로 기독교의 신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의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¹³ 이처럼 바울이 아테네 설교에서 일차적으로 한 일은 기독교의 신도 그리스인들의 다신관적 세계관 안에서 받아들일만한 신으로 설명한 일이었다. 바울이 다신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아테네인들에게 그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유일신적 신앙을 갖도록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다.

13) “...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행 17: 32).”

갈등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예는 1960년대 말 기독교 신념의 합리성을 보여준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의 시도를 들 수 있다. 1950년대 후기와 1960년대 초기의 주된 철학적 사조는 논리적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분석철학이었다.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검증가능한 과학적 논리적 명제들만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참된 의미를 가진 것들이었으며,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장이나 도덕적 미적 판단과 결부된 명제들은 의미 없는 것들로 치부되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다.¹⁴ 따라서 당대에 종교철학적 질문들과 신학적 질문들은 의미 없는 것들로 치부되었으며 학문으로 다루어진다고 해도 형이상학적 실제의 내용이 아닌 종교철학·신학과 관련된 언어들 중심에 연구된 것이 전부였던 시대였다. 물론 이러한 사조는 1960년대에 일상 언어학과의 등장과 포퍼의 검증가능성 비판, 그리고 과학에서의 객관성 비판과 맞물리면서 쇠퇴기를 맞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주된 철학적 사조는 여전히 논리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철학이었다. 신과 종교적 경험에 대한 명제들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무신론적인 경향성이 강하던 시대가 바로 1950년대와 1960년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의 한 일이란 적어도 유신론적인 신념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당대에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초신념의 조건을 분석 비판함으로써 유신론적 신념도 합리적인 기초신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lantinga, 1983: 65). 따라서 유신론적 신념이란 비합리적이기에 유신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대의 사상적 흐름에 맞서 초기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은 유신론적 신념이 참된 진리라고 무작정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유신론적 신념 역시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적어도 자신들의 입장이 당시의 주된 사상적 사조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극단적 주관성이 강조되는 취향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대화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 전략이란 대화와 갈등해결의 출발점은 항상 당시의 사상적 흐름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취향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취향 존중의 시대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성품과 관련된 덕들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의 도덕적 취향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친다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극단적 주관주의를 인정할 뿐이기에 대화와 갈등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닫혀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적 토론이다.

토론이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통해 상이한

14) 당시 시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종원(2017: 325-327)을 참조하라.

견해들이 일치될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탈진리의 시대라 해도 그리고 의견과 입장이 서로 다양하고 불일치하더라도 내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면 반박 가능성을 인정하고 토론과 논증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주의자가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토론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그는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치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은 적어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제는 오늘날 취향이 개인의 선호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취향에는 일관된 관점을 적용할 만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 모순된 두 취향을 동시에 가지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향개념이 결국 미덕과 연관되어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취향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 개인이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인지적인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취향은 충분히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취향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피와 녹차 사이에 무엇을 선호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순전히 나의 미(味)각에만 연관되어 있을 뿐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특정한 취향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신념구조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먹는 커피가 강제로 착취된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음료 취향은 바뀔 수 있다. 내가 환경주의자라면 환경 친화적인 취향을 좋은 취향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취향을 좋은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취향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개인이 가진 신념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에 취향으로 인한 몇몇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취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취향을 뒷받침하는 신념구조들 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향 자체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신념 구조, 즉 세계관을 살펴보고 그것과 연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보는 것은 좋은 전략일 것이다.

III. 결론

우리시대의 취향은 문화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취향에 대한 기독교적 갈등해결의 첫 출발점은 취향의 주관성을 벗어나 적어도 상

대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없고 파편적인 개인의 입장을 나타내는 주관주의와 달리 상대주의는 적어도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된 내적 체계를 갖고 있기에 토론을 가능케 한다. 이는 취향 이면에서 작동되는 하나의 세계관 혹은 일관된 신념구조와 취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드러냄으로서 가능해질 수 있다. 바울이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아고라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나,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이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념을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옹호한 시도 역시 당시 주된 사상적 흐름이 적어도 일관된 관점 아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 포괄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데까지 도달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인 진리란 세계관이 달라도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들의 총체를 말한다. 건전한 신념체계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계관들 간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세계관 사이의 옳고 그름의 다름이란 결국 세계관을 구성하는 전제들 간의 다름일 것이며 이성적 토론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전제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일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건전한 세계관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신념들과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아마도 자유, 평등, 인류애, 자비, 정의와 같은 신념들은 긍정적 가치로, 폭력, 압제, 차별, 부정의와 같은 신념들은 부정적인 가치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향들이 좋은 취향이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향을 나쁜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며, 그러한 취향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대부분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으로 간주되는 것일 것이다. 이 공통된 가치의 발견이야말로 취향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한 지점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취향의 문제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인정을 원할 때, 그리고 그 결과 상호간에 대화와 토론이 단절되고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향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신념구조와 세계관이 있음을 드러내어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어 공통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때 기독교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성경의 미덕들은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김동훈 역 (2019).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 비극에 대하여 외**, Hume, D. (1757) Four dissertations, 서울: 마티.
- [Kim, D. H. (2019). *Of the Standard of Taste & Of Tragedy*, Seoul: Matibooks. Trans. Hume, D. (1757) *Four dissertations*, London: A. Millar]
- 김종원 (2017). 초기 개혁주의 인식론의 합리성 개념 -고전적 기초론과 증거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68, 323-362.
- [Kim, J. W. (2007). The Concept of Rationality of Reformed Epistemology in Its Early Period,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68, 323-362.]
- 김종원 (2020). 샤프츠베리와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에서 이성의 위치 -덕 윤리학의 근대적 계승-. **철학탐구**, 60, 63-97.
- [Kim, J. W. (2020). The Role of Reason in the Early Moral Sense Theories: A comparison between Shaftesbury and Francis Hutcheso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60, 63-97.]
- 양선이 (2016). 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철학연구**, 114, 305-335.
- [Yang, S. I. (2016) The Role of Sympathy and Moral Nomativity in Moral Sentimentalism of Hutcheson, Hume, and Adam Smith.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114, 305-335.]
- 이준호 역 (1996).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2: 정념에 관하여**,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서울: 서광사.
- [Lee, J. H. (1996) *A Treatise of Human Nature*, Seoul: Seokwangsa. Trans.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on, R. (1937). *Liber de sensu et sensato, Summa de sophismatibus et distinctionibus*, Robert Steele (Ed.), Oxford: Clarendon Press.
- Burnett, C. (1991). The Superiority of Taste.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Vol. 54, (1991), 230.
- Carruthers, M. (2013). *The Experience of Beauty in the Middle 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olman, B. T. (2004). *Knowing God by Experience: The Spiritual Senses and the Knowledge of God in the Theology of William of Auxerre*,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Dickie, G. (1996). *The century of Taste: The Philosophical Odyssey of Taste in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ard, A. (1759). *An Essay on Taste*, London: A. Millar.
- Grene, M. (1943). Gerard's Essay on Taste. *Modern Philology*, 41(1), 45-58.
- Hutcheson, F (2004). *An Inquiry Concerning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Virtue or Moral Good*, Indianapolis: Liberty Fund.
- Jauss, S. A. (2006) Associationism and Taste Theory in Archibald Alison's Essay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4(4), 415-428.
- Johnson, D. (2012) The Objectivity of Obligation in Divine Motivation Theory: on imitation and submission.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0(3), 504-517.
- MacIntyre, A. C.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lantinga, A. (1983) Reason and Belief in God. *Faith and Rationality: Reason and Belief in Go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6-93.
- Radcliffe, A. (2008) *Mysteries of Udolpho*, Oxford: OUP.
- Shaftesbury, (2000).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Ed.) Lawrence E. Klein, 20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gzebski, L. (2004). *Divine Motivation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취향과 기독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취향간의 갈등 해결*

Taste and Christianity

김종원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교양대학 조교수)

논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늘날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만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적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사라진 현대의 갈등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취향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취향 개념을 분석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품성과 취향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대적 갈등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주제어: 취향, 기독교, 영국경험론, 덕, 갈등해결.